



新春構想

綜合食品會社로 기반 구축

베토벤의 스프링 소나타(Spring Sonata)는 언제 들어도 좋다. 온 대지가 죽은 듯 뚝뚝 얼어붙은 황량한 겨울이나, 오늘처럼 봄의 소리가 들리는 날에는 더욱 좋다.

봄날처럼 따사롭고 포근하며 봄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이 곡은 언제나 鬱居와 絶望을 어루만져주고, 밝은 내일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준다.

오늘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니 햇볕과 바람이 몰라보게 부드럽다. 금방 방안 가득이 봄이 몰려들것만 같다.

내가 몸담고 있는 乳加工業界는 이상하리만치 自然의 四季와 순결을 같이한다. 자연이 겨울이면 우리 會社도 역시 겨울이다. 판매고가 가장 저조한 때가 겨울이다.

그러나 자연이 봄이면 우리회사도 역시 봄이다. 봄의 여신이 밝은 미소를 보이면 우리는 겨울의 길고 긴 우울과 鬱居에서 깨어나 계절의 여왕 5월에 대비하고, 太陽이 이글거리는 盛夏의 계절에 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발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한다.

나는 지금 바쁘다. 무척 바쁘다. 봄의 축복이 내리기 시작하면 걸음걸이부터 빨라져야 한다. 금년도에 대비한



林 永 大
(大一乳業(株)社長)

밭갈이와 씨뿌리는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와야하기때 문이기도 하지만, 不毛의 韓國酪農業界에 새싹을 내민 大一乳業(株)를 아람드리 巨木으로 키우기 위한 構想과 작업에 더욱 바쁘다.

새 봄에는, 이 會社의 최고경영자로서 처음 맞는 이 새봄에는 회사가 종합식품으로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볼 작정이다. 땅을 더욱 더 깊이 파고, 밑거름을 듬뿍넣어 肥沃한 土地를 마련해볼 작정이다.

適正利潤을 追求하고, 宗업원에 대한 人間的인 대우를 위해 노력하며, 企業의 社會的인 責任을 완수할 수 있는 盤石같은 계획을 마련해서 大綜合식품회사로의 주춧돌을 마련하겠다.

이에따라 그동안 자연의 변화에 무력했던 회사의 생산 판매체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季節에 구애받지 않고 언

제나 판매할 수 있는 多様な 신제품의 開發과 확장이 그것이고, 언제나 뛰어난 판매고를 올릴 수 있는 全天候販賣方式의 模索이 그것이다.

우리 會社의 活路가 바로 여기에 있고, 무궁한 발전 방향 雄飛의 첫 걸음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우리의 企業環境은 이런 構想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일이 너무도 많다. 뚫고 나가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이 山積해 있다.

경쟁은 熱度를 더해가고 있고, 집중하는 原價壓力에

도 製品價는 그대로 묶여있으며, 資金事情은 好轉될 줄 모르고 있다. 이런 일들은 새몸을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봄은 오고 있다. 지금쯤 남녘 어느 농촌에서는 뿌연 들판에 아지랑이가 일고; 종달새가 노래하는지도 모르겠다. 봄이다. 새봄이다. 蘇生과 희망의 새봄이다. 환희의 꽃다발로 봄의 여신을 맞으면서 가을의 풍요한 수확을 위해 땅을 깊이 갈고 씨를 뿌려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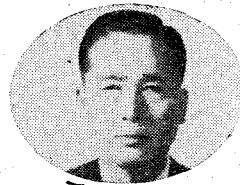
새로운 需要 창출에 力点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라”는 말과 같이 봄은 곧잘 희망의 제절로 표현되고 있다.

이번 겨울의 韋를 장식하려는 듯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수십년래의 흑한도 얼마 전 立春을 고비로 고개를 숙여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눈앞에 와있는 듯하다.

삼립식품이 겪은 지난 겨울은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해 겨울보다도 활기에 찬 기간이었고 추위를 모르는 날이었다고 생각된다.

유류과동이후의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르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 내고



許 昌 成

(三立食品工業(株)會長)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맞이한 1976년도에 제빵업계 각사는 출혈경쟁을 지향하고 의의 경쟁속에서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합의하여 그야말로 심기일전의 태세를 갖추었고 이에 힘입어 삼립식품도 획기적인 매출신장을 이룩하고 새로이 참여한 빙과업체에서 부동의 위치를 회복하는 등 사세확장에 팔목할만한 성과를 거





新春構想

두었으며 증가하는 제품수요에 대한 대책과 1977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느라 전임 직원이 동분서주하니 추위도 잊은채 겨울을 보낸 것이다.

이제 새봄을 맞아 삼립식품의 금년도 설계를 개관해 보면 한마디로 종합식품회사로서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장새마을운동의 토착화와 QC제도의 도입등을 통해 제빵업계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내실을

다지는 것은 물론이요 빙과 제품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데 금년도 사업목표의 역점을 둘 생각이며 이외에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손대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던 몇가지 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1977년도에 삼립식품 30년사의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전직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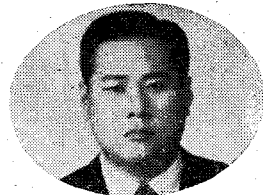
次元높은 새마을 運動전개

누구던 間에 해가 바뀌고 보면 지난일들 중에서 이것저것을 더듬고 새해에 方向을 고쳐야 겠다고 다짐하는 모양이다.

나도 이 問題에서 例外일 수는 없었고 또 한해가 바뀔 때마다 몇몇 方向을 생각 해 본다. 그러나 年末에 가서 그렇게 審査分析을 해본바는 별로없다.

事業이랍시고 하다보니 經理面이나 運營面에서는 그 나름으로 部署에서 資料가 期日別이나 月別로 檢計되겠지만.....

내 自身으론 恒常 出發에 比하면 結果에 對해 번거롭게 생각하지 말자고 넘겨 버리기 일수도, 刻薄하게 展開되는 나날이 憤走한 鬨도 있



金 政 云
(三立食品(株)社長)

겠지만 반성할라치면 忌避性이 없지도 않다.

어느 親舊가 현재는 현재이고 지난 일일랑 執着달고 넘기는 覺만이 다음을 斬新하게 받아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하고 現實과는 時空노이로제 이상의 精神疾患者의 集體가 될것이니 努力해서라도 있어가면서 살아야한다는 말이였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럴사하기는 하나 눈만뜨면, 잠만 자면 치달는 머리속은 역시

自己自身을 잃는 모양이다.

그러니 새해면 으레 이렇
군 저렇군 雜想을 너러놓고
좀 화려한 精神衛生的 自我
에 힘써보겠다지만 역시 예
사로 잊어버리고 무언가에
쫓기우고 시달리는 인생으로
번한다. 이런 녀누리를 하면
서 금년한해 또 自我發見에
몇몇을 열거해 본다면 아예
쑥스러워 公表를 삼가키로하
고 다만 내친 事業인 生業에
는 次元을 좀 달리해서 보다
奉仕性을 높이고 대중에 공
헌하는 方向으로 盡力해서

국민보전생활에 微力이나마
支柱이 되어 보고싶다.

그리고 病幣的 風土를 改
善하려는, 源泉的 手術인 “새
마을 운동”이 우리 산업사회
에도 받아 드려져 새로운 경
영관리의 철학이 된지도 三
年이란 履歷을 갖게 되었으
니 이제는 형식적이고 주변
정리적인 새마을 운동을 지
향하여 실질적 소득이 있는
차원높은 새마을운동을 展
開하여 그동안 못다한 사원들
의 福利厚生 문제를 이해에
는 꼭 완수하여야겠다.



200億 달성 위해 온 힘을

立春이 벌써 지났는데도
窓밖의 행인들은 움추린 중
종걸음이다. 아직은 약간 추
운 모양이다.

웃뚝 솟은 빌딩과 빌딩사이
로 꿈틀대는 햇살이 아롱대
는 그 무엇은! 나의 먼-옛
날 고향의 시내가 들판의 종
달새 우지깃든 아지랑이를
連想케하여 먼-望郷의 향
수에 스며들게 한다.

그러나 내몸은 지금 세계
에서도 몇체가는 울창한 빌
딩숲의 한모퉁이 病床! 몇
주째 못간 牙山별관 “牧場”
오는 일요일은 그곳이나 찾
아 소와 닭과 대화나 하자!

피곤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니 불연듯 走馬燈처럼
스쳐오는 20여년전 창업, 그



徐 鵠 澤

(서울食品工業社長)

당시로 부터 이 瞬間을 지나
엇그제의 진지했던 우리 밑
음직한 일꾼들의 “200億” 그
외침 소리가 고막을 흔들어
급기야는 나를 病床에서 일
으키고 말았다.

한참이나 넓은 病院을 서
성이면서 나는 이렇게 마음
으로 조용히 다지며 외어 보
았다. “너와 나” 전사가 혼
연일체가 되어 당기고 밀어
오직 목표달성을 위해 온-
힘을 다 할것이라고.